

체제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An Analysis of Financial Statement Among Urban Households Based On a System Approach—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양 정 선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교육학과
부 교수 김 순 미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 Jung Sun Ya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Soon Mi Kim

〈목 차〉

I. 서 론	IV. 분석결과와 해석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of resources and demand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tatement of urban households by applying a system approa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aving rat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sources variables such as age, family life cycle, occupation of househead and housewife, ratio of employed to family member, and to demands variables such as subjective prospect of business cycle, and value orientation, whereas total saving amou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sources variables such as age, family life cycle, educational level, per capita income, occupation of househead, type of income and to demand variable, perception of relative income. Also average monthly saving amou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sources variables such as educational level, per capita income, occupation of housewife, housing ownership, ratio of employed to family

member, ratio of dependent to employed, and to demands variable, perception of relative income.

The stock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sources variables such as age, family life cycle, educational level, per capita income, occupation of househead, type of income, and housing ownership. Finally, real estat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sources variables such as age, family life cycle, educational level, per capita income, occupation of househead, type of income, housing ownership, and to demands variable, perception of relative income.

Financial Statement among urban households according to family financial manageme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nd among all variables affecting financial statement among urban households, per capita income had the highest effect and perception of relative income was the second.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각종 수급요인의 불균형, 인플레이션, 원가변동 및 시장의 경쟁요인 등, 복잡하고 상호관련된 경제 제요인들에 의하여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의 외적 환경변화는 가계의 내적 요구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재정문제에 대한 가계의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내적, 외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가계는 현재의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 위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Beutler와 Mason, 1987; Titus, Fanslow와 Hira, 1989; 김연정, 1990).

특히 가계는 현재의 소비수요를 충족하려는 욕구와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요구간에 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며 또한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인적, 경제적 및 환경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직하게 된다(Hefferan, 1982). 이러한 가계관리는 시간선호적 측면에서 안정지향적 가계관리와 성장지향적 가계관리를 유도하게 되는데 안정지향적 가계관리는 현재 소비효용의 극대화를, 성장지향적 가계관리는 미래 소비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현재 소비수요와 미래 소비수요는 상충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상태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즉 현

재의 재정상태이든 미래에 예측되는 재정상태이든간에 가계관리와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며 또한 가계관리와 가계의 재정상태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계관리는 가계의 재정적 상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체안의 구성을 뜻하며, 재정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계의 공동요구를 찾아내어 예측할 수 있는 변화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상황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김순미, 1986). Titus, Fanslow와 Hira(1989)는 체계론에 근거하여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면서 목표 및 사건에 대한 요구와 자원의 투입, 계획과 수행의 재정적 관리의 변환과정, 그리고 지불능력, 순자산, 만족감 등으로 나타나는 산출 등을 체계요소로 설명하였는데 체계론적 접근법은 가계의 재정상태와 가계관리, 그리고 투입변수의 복합적인 관련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투입요소에 대한 요구의 충족과 자원의 변화라는 산출결과가 가계관리과정의 조절과정 속에서 촉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론적 접근은 당위성을 갖는다.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일반적 방법은 가계 저축과 투자에 대한 분석이다. 가계는 저축이나 투자에 의해 획득하는 자산이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나아가 그 저축의 이득을 획득하게 될 때까지 생존할지에 대하여도 확신할 수 없는 생애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Olson과 Bailey, 1981). 대부분의 가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재 소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건전한 재정상태를 지향하고자 저축 및 자산증식에 대한 동기가 유발된다. 따라서 가계의 저축 및 투자수준은 재정적 위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Mullis와 Metzzen, 1986).

가계관리와 가계의 재정상태간의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재정상태를 저축 및 투자 이론의 단순한 검정, 저축 및 투자의 객관적 측정, 주관적 측정에 의한 재정상태와 가계관리간의 관계 등이 기존 연구의 중심이 되어 왔다. 또한 가계의 재정상태측정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으나 가계변수들간의 관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Mullis와 Metzzen, 1986) 그 이유는 가계의 재정상태에 관한 자료수집이 비용이나 시간측면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Prather, 1990).

따라서 재정영역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가계관리과정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즉 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간의 관계를 체계론적 접근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체계론적 측면에서 가계 재정상태와 가계관리의 이론에 근거하여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각 가계가 소유하는 자원의 양과 질, 그리고 가치, 태도 등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계관리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또한 가계의 재정상태를 이해함으로써 가계의 미래 대처능력을 예측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도시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둘째, 투입변수인 자원변수와 요구변수에 따른 도시가계의 재정상태의 차이를 파악하며 셋째, 변환변수인 가계관리에 따른 도시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넷째, 도시가계의 재정상태에 관한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생활주기를 통한 가계의 재정적 목표설정과 재정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은퇴기의 재정계획을 위한 대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가계는 소득 창출과 소비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득과 소비간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각 가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관과 능력에 따라 다르게 결과할 수 있다.

가계의 경제적 기능 영역을 크게 금전, 지출, 저축, 자산의 4 측면으로 구분지을 때(Ferber, 1973: 김연정, 1991에서 재인용), 현재소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극적 가계는 금전관리와 지출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며, 현재의 희생된 소비로 미래소득을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인 가계는 저축관리와 자산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다.

소극적 가계와 적극적 가계로 구분되는 금전·지출관리와 저축·자산관리의 각 특성은 시간선호적 측면에서 볼때 현재선호와 미래선호로 표명될 수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는 안정지향적 가계와 성장지향적 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안정지향적 가계는 현재 소비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목표아래 적자재정상태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가계관리를 수행하는 반면, 성장지향적 가계는 미래 소비효용의 극대화를 지향하여 흑자재정상태를 유지하려는 적극적 가계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소비수요와 미래의 소비수요는 상충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가계가 갖는 시간선호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상태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가계가 처해 있는 재정적 위치, 즉 재정적 상태는 과거에 가계가 수립하였던 재정적 목표의 실현을 의미하며 가계관리의 결과로 형성된다. 가계의 현재 재정상태는 과거에 수행된 가계관리의 결과이며 미래 재정상태는 현재의 가계관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상태이든 미래에 예측되는 재정상태이든간에 가계관리와는 불가분성을 갖는다.

1. 가계의 재정상태

가계의 재정상태 파악은 그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문제를 규명해 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문제의 규명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계관리단계를 유도

하게 된다(Kufman, 1972; Edwards, 1988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가계가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을 개선시키고 미래의 재정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Sullivan, 1984).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은 저축과 투자에 대한 분석이다. 저축과 투자의 개념은 분석의도에 따라 동일선상에 놓인 동일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혹은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별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현재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가계저축이라고 하면 '일정기간의 가계의 거처분소득 또는 생산액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잔여부분'을 말하며 결국 투자와 일치한다(강병호, 1988). 한편 가계저축과 가계투자를 분리시켜 보는 입장에서는 가계저축을 투자성과에 관계없이 단순히 현재소비를 희생시키는 행위로 파악한다(남명주·우춘식, 1991). 이렇게 저축과 투자를 동일개념으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은 실제 가계투자가 저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금융자산투자와 실물자산투자 두영역에서 모두 보여지기 때문에 가계 분석을 위하여 유용하다.

이러한 가계저축과 가계투자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가지 공통적 특성을 갖는다.

첫째로 가계저축과 가계투자는 일정한 시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어떠한 저축대상이나 투자대상이든간에 가계는 다른데에 사용(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재정적 목표의 실현을 기대하면서 그 대상에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다. 저축과 투자는 현재 이루어지는 반면, 그 결과는 현재가 아닌 미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현재가 아닌 미래소비를 위해 현재소비의 일부를 희생(유보 또는 연기)하는 것이다.

둘째로 가계저축과 가계투자는 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현재의 희생은 확실(certain)한 것이나 미래의 이득은 불확실(uncertain)하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래의 이득이 기대했던 것만큼 실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의 경우 확실성이 지배적이고 투자의 경우 불확실성이

지배적이다(장영광, 1988).

저축과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계의 재정상태는 가계가 보유하는 순자산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가계가 저축과 투자를 통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유형과 수준은 가계에 따라 다르다. 특히 가계의 실물자산은 대체로 금융자산과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간의 수익을 편차가 발생하거나 인플레이션, 부동산 투지, 증시활황 등으로 자본이득이 발생할 경우 가계가 수익을 또는 가격상승이 큰 자산을 선택함에 따라 금융자산과 실물자산간의 대체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가계실물자산의 하나인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가계는 일정기간 동안의 저축을 모아서 실물자산을 구입하려던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금융부채 등의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실물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줄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78-79년과 1983-84년 등 실물자산율이 높아진 시기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던 때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8, 9).

가계의 재정적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객관적 측정기제와 주관적 측정기제를 통한 평가로 가능하다. 객관적 측정기제는 명확한 지표표를 제시해주나 주관적 측정기제는 자교각득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포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Fletcher와 Lorenz, 1984; 김연정, 1991에서 재인용). 그러나 주관적 측정기제는 객관적 측정기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계의 재정상태 파악에 1차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객관적 측정기제이다. 객관적 측정기제로는 순자산저량, 총순자산량 등의 산술적 크기를 기초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Rudd, 1976; Griffith, 1985; 윤정혜, 1986; Canner와 Fergus, 1987; Lang, 1988; Hanna, 1989; Hira, 1989; Prather, 1990; Scannell, 1990; 김연정, 1991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측정보다는 재정상태의 상대적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측정의 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Griffith와 Widdows(1985), Prather(1990)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계획하

는 데 있어서 상대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측정치를 기초로 하여 재정상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은, 다양한 측면에서 순자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적 이유는 가계의 자산에 대한 자료수집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체계론적 개념들에 의한 가계관리

가계관리의 개념화는 Paolucci, Hall과 Axinn(1977), Bubolz와 Sontag(1979), Gross, Crandall과 Knoll(1980), Rice와 Tucker(1986), Deacon과 Firebaugh(1988) 등의 학자들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발달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체계론을 들 수 있다(김연정, 1991).

체계의 요소는 투입, 변환, 산출, 피드백이라는 4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투입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과 요구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산출은 체계가 환경에 내보내는 반응으로써 다른 체계와 상호적 교환 및 상호의존적 유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피드백은 목표수행과정을 통제하는 체계의 능력이며 수정활동의 단서를 제공한다(Rice와 Tucker, 1986: 문숙재·김정옥, 1990에서 재인용).

Titus, Fanslow와 Hira(1989)는 체계적 접근으로 가계관리를 언급하면서 투입은 목표 및 사건에 대한 요구와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환과정은 가계의 실제 재정적 관리로 구성되며 이런 활동들의 수행에 따라서 재정적 목표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와 자원이 최대화 되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산출은 지불 능력, 순자산, 만족감으로 표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객관적, 주관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관리는 재정적 목표, 가계의 자원과 환경, 가계의 재정적 체계의 구성요소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Edwards, 1988).

가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주요한 재정적 목표는 재정적 복지의 향상(Churchman, 1979)이며, Sullman(1984)은 가계관리를 위하여 제시되어야 할 구체적

하위목표로 건전한 재정상태(Financial Health), 합리적 지출계획(Spending Your Money Wisely), 주택 및 부동산의 소유 및 임차(Home and Other Real Estate), 보험계획(Insurance Program), 투자 포트폴리오(Diversified Investment Portfolio), 은퇴계획(Retirement and Estate Planning)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가계관리의 수행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가계저축 및 투자관리를 하는 경우 가계가 인지하는 위험, 시간, 관리기술 등은 중요한 제약조건이 된다. 가계는 스스로 정한 특정한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율을 획득하려고 하며,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는 높은 기대수익율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 가계는 위험을 회피하게 된다. 또한 가계는 저축의 경험은 많으나 투자의 경험은 저축보다 적기 때문에 투자관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여할 수 없으며 복잡한 투자관리를 하는 기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제약이 있다(최운열, 1987). 따라서 가계관리는 이러한 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계의 재정 상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체안을 구성하게 되며 이는 기능적 하위요소에 대한 체계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가계는 현재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요구와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요구간에 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며 또한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는 인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을 배분, 조정하는 조직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체계이다(Hefferan, 1982). 그러므로 가계관리의 목표는 가계를 이끌어가는 행동원리로 가계의 공동요구를 찾아내어 분석, 비교 및 정리, 검토하는 것이며 가계가 예측할 수 있는 요구의 변화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두어야 한다(김순미, 1986).

이러한 흐름을 볼 때, 가계관리는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며 가계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체계분석의 특수한 목표의 규정,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결정, 분석에 대한 의문제기, 새로운 대안의 고려, 새로운 목표의 수립 등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Edwards, 1988).

3. 가계관리와 가계 재정상태의 관련변수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자원변수

Titus, Fanslow와 Hira(1989), Hanna(1989)의 연구에 따르면 가계관리 및 가계의 순자산이 연령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가족생활주기 역시 가계의 재정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Mirer(1979: Mullis와 Metzen, 1986에서 재인용)와 Juster(1982: Mullis와 Metzen, 1986에서 재인용). 그리고 조희금(1984)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Hefferan(1982)은 가계저축에 관한 연구에서 가구의 크기 및 취업인(1972년 연구)의 수, 그리고 소득이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Motely와 Watchel(1972: Hira, 1987에서 재인용)은 소득유형이, 그리고 김순미(1987)의 연구에서는 주택의 소유형태가 금융자산 선택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Beutler와 Mason(1987) 그리고 Hira(1989)는 직업과

교육이 재정상태와 가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2) 요구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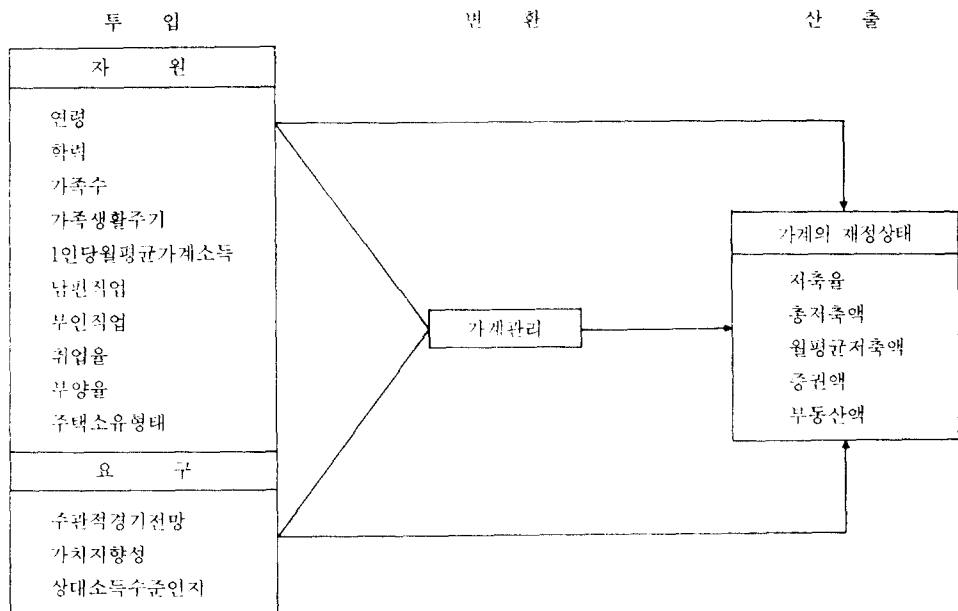
Katona(1974), Randall(1981), 이주선(1984)의 연구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야기되는 주관적인 경기 전망이 가계의 자산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태도 및 기대변화(Katona, 1974)는 측정가능한 자료로서 전체경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한 Ferber(1973), Atkinson(1977)는 준거집단과의 비교가 만족감 및 가계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연정, 1991에서 재인용).

(3) 변환변수

김순미(1987), Titus, Fanslow와 Hira(1989), Scannell(1990) 등 그밖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가계관리의 능력이 가계의 순자산 및 재정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관련변수들을 기초로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변수로는 연령, 학력, 가족수, 가족생활주기, 1인당월평균가계소득, 남편직업, 부인직업, 취업률, 부양률, 주택소유형태

(그림 1) 연구모형



업, 취업율, 부양율과 주택소유형태를, 그리고 요구 변수로는 주관적 경기전망, 가치지향성, 상대소득수준인지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원변수와 요구변수가 투입변수로서 작용하게 될 때 가계관리를 변환변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입변수 및 변화변수가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연구문제의 설정

〈기초분석〉 도시가계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 도시가계의 재정상태는 투입변수인 자원변수와 요구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도시가계의 재정상태는 변환변수인 가계관리능력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택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0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분석 후 설문지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470부의 설문지를 평균 가계소득, 생활주기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배부하였다. 수집된 자료 430부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37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연령과 학력은 저축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부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령과 수학년수의 평균값을 각각 사용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유영주(1984)의 연구를 기초로 형성기, 확대기, 축소기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1인당월평균가계소득은 월평균 가계소득을 가족수로 나눈 값이다. 남편직업과 부인직업은 김영모(1980)의 분류를 근거로 전문직, 비전문직, 전업주부 및 무직으로 나누었다. 취업율은 총 가족수에 대한 취업 가족원수의 비율로 계산한 값이며 부양율은 취업 가족원수에 대한 부양 가족원의 수(부양 가족원수는 총 가족수에서 취업 가족원수를 뺀 값이다)의 비율로 계산한 값이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와 타가로 분류하였고 타가에는 전세와 월세가 포함된다.

주관적 경기전망은 실제로 나타나는 경기변동 지수와 관계없이 가계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기변동의 인지이다. 이것은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전망으로 구분하며 낙관적 경기전망은 현재와 3년후의 미래 경기변동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상태이고 비관적 경기전망은 경기흐름과 발전이 역기능적으로 진행하리라고 느끼는 상태이다. Michigan 대학 조사연구센터(1952)의 소비자여론지표(Index of Consumer Sentiment)를 기본으로 한 김기옥과 이승신(1990)의 연구, Katona(197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5점 Likert Type의 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점수 범위는 5-25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을 나타낸다. 신뢰도 검정은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699로 나타났다. 가치지향성은 현재와 미래 중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는가를 나타내는 행동의 기준으로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현재지향성은 미래보다 현재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 또한 가치지향성은 시간선호의 측면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Kluckhohn의 가치관 모형에 입각한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69)의 가치관 검사, 윤정혜(1986)의 연구와 홍은실(1990)의 연구를 참조하여 시간지향성에 관한 문항과 활동지향성에 관한 총 6문항을 요인분석하고 그 성격상 현재지향적 가치성향과 미래지향적 가치성향으로 분류하였다. 상대소득수준인지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타인 및 준거집단의 소득수준의 차이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이다. 최고의 생활수준을 10점, 최하의 생활수준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	명	변수	집단	%	명
연령	20대	4.8	18	주택	자가	71.9	269
	30대	25.0	93		소유형태	타가	28.1
	40대	39.6	148	취업율	하 0.00-0.20	23.3	87
	50대	18.0	67		중 0.21-0.40	50.7	189
	60대 이상	12.6	47		상 0.41-1.00	26.0	97
학력	중졸이하	12.6	47	부양율	하 0.00-1.33	26.4	97
	고졸	58.2	217		중 1.34-3.00	44.3	189
	대졸이상	51.2	109		상 3.01-7.00	22.3	82
가족수	2인 이하	7.5	28	주관적	비관적	28.5	106
	3인	14.5	54		경기전망	중립적	39.8
	4인	41.5	155	낙관적		36.7	118
	5인 이상	36.5	136	가치	현재지향적	65.8	242
가족 생활주기	형성기	16.0	60		지향성	미래지향적	34.2
	확대기	68.2	255	상대소득	-4 - -1	25.2	93
	축소기	15.8	59		수준인지	0 - 1	51.5
1인당 월평균	25만원 미만	27.7	102		2 - 6	23.3	86
가계소득	50만원 이하	30.7	113	가계관리	하 18-58	30.9	112
	남편직업	전문직	6.1		23	중 59-66	37.3
관리직		20.6	77		상 67-90	31.8	115
전문기술직		9.9	37	가계관리	하 6-18	32.8	120
사무직		33.4	125		계획	중 19-21	37.4
생산직		10.2	38		상 22-30	29.8	109
판매·서비스직		12.6	47	가계관리	하 6-20	25.9	95
무직		2.7	10		수행	중 21-24	47.9
부인직업	전문직	1.6	6	상 25-30	26.2	96	
	관리직	1.3	5	가계관리	하 6-18	30.2	112
	전문기술직	4.3	16		통제	중 19-22	37.7
	사무직	7.2	27		상 23-30	32.1	119
	생산직	5.1	19				
	판매·서비스직	7.0	26				
	무직·전업주부	73.3	274				

0점으로 한 11칸의 사다리 척도를 기초한 Cantrill (1965)의 자아준거적 성취척도에 근거하였다. 즉 응

답자가 느끼는 자신의 현재 소득수준과 주위 이웃이나 친지의 가계소득에 대한 인지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후 그 차이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가계관리는 Rice와 Tucker(1986)가 사용한 가계관리 계획, 가계관리 수행, 가계관리 통제의 3하위 영역을 총합한 것이다. 대개의 경우 가계관리 계획과 가계관리 수행만을 관리 과정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가계저축 및 가계투자행동에서는 특히 검토와 수정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계획, 수행, 통제의 3과정을 모두 포함시켰다. 윤정혜(1986)의 소비자 기능척도, Titus, Fanslow와 Hira(1989)의 계획 및 수행지표, Ferber(1973), Rice와 Tucker(1986), Edwards(1988), 김연정(1991) 등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계획, 수행 및 통제의 3 영역에 대하여 각 6문항씩 총 18문항을 5점 Likert Type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8-9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관리행동의 능력이 높다. Cronbach's 계수는 .790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재정상태는 보유자산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가계가 보유하는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산보유 실태를 보면, 금융자산의 경우 저축과 증권, 실물자산의 경우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부적으로 저축율, 총저축액, 월평균저축액, 증권액, 부동산액으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저축율은 월평균 가계소득 중 저축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총저축액은 현재까지 적립된 총 저축금액이며 월평균저축액은 월평균 가계소득에 저축율을 곱한 매달의 저축금액이다. 증권액은 현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총합의 현재시가이며 부동산액은 현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즉, 주택, 택지, 농지, 건물, 콘도미니엄 등) 총합의 현재시가이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투입변수에 따른 가계의 재정상태 그리고 그 하위변수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였으며 F-test, T-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각 변수별 하위 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자원변수와 요구변수 및 가계관리가 가계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분석결과의 해석 및 논의

1. 가계재정상태의 기초분석

(1) 가계저축 및 투자종목의 보유현황

도시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저축 및 투자종목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저축을 하고 있는 집단은 전체 응답자 중 91.2%로 나타나 1991년 9월에 조사한 저축추진위원회의 조사결과인 87.6%와 큰 차이가 없었다. 증권보유 집단과 사채보유 집단은 각각 30.2%, 17.1%였으며 부동산을 보유한 집단은 75.7%였다.

(2) 소득유형에 따른 가계저축 및 투자보유 실태
소득유형에 따른 가계저축 및 투자보유 실태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소득유형은 정규소득과 임시소득이 모두 있는 가

<표 2> 가계저축 및 투자종목의 보유현황

(N=374)

종 목	보유가구 빈도	보유가구 비율(%)	총자산에 대한비율(%)	금융자산에 대한비율(%)	평균 (만원)	표준편차
저 축	341	91.2	10.2	97.0	1,434	247.470
증 권	113	30.2	1.7	17.18	518	184.176
사 채	64	17.1	0.9	5.4	591	785.531
부동산	283	75.7	78.1	2,082.5	27,360	6,795.842

〈표 3〉 소득유형에 따른 가계저축 및 투자보유 실태

저축·투자유형 소득유형	저축율(%)		총저축액(만원)		월평균저축액(천)		증권액(만원)		부동산액(만원)	
	평균	빈도 F값	평균	빈도 F값	평균	빈도 F값	평균	빈도 F값	평균	빈도 F값
정규/임시소득	21.69	75	2,479	75 ***	425	74	1,415	73 ***	50,796	71 *
정규 소득	22.95	231 1.45	1,134	225 6.45	342	230 2.05	327	230 7.65	20,348	221 3.79
임시 소득	25.09	47	1,493	50	372	47	204	50	27,622	45
비해당 ^a	16.56	16	589	16	203	16	168	16	17,438	16

* p<.05 ** p<.01 *** p<.001

a: 정규소득과 임시소득이 모두 없는 집단

계, 정규소득만 있는 가계, 임시소득만 있는 가계, 정규소득과 임시소득이 모두 없는 가계의 4집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집단은 총저축액, 증권액, 부동산액에 대해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2. 연구문제의 분석

(1) 투입변수에 따른 가계의 재정상태

가. 저축율

연령에 따른 저축율의 차이를 살펴 보면 20대가 평균 31.78%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율이 점차 감소함으로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조희금(1984)의 연구 및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결과(1991)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20대의 경우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 주택마련을 위한 재정적 목표가 강한 시기이므로 다른 연령보다 저축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는 타가의 저축율이 자가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주택가계가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가치지향성의 경우 미래지향적 집단이 26.47%, 현재지향적 집단이 20.67%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을 현재소비를 희생하여 미래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로 규정할 때 이에 부합되는 현상으로써, 즉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가계일수록 현재소비보다는 미래소득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총저축액

소득유형에 따라 총저축액의 차이를 보면 정규소득과 임시소득을 모두 갖는 가계와 정규소득만을 갖는 가계간에, 그리고 정규소득과 임시소득을 모두 갖는 가계와 임시소득만을 갖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임시소득과 정규소득의 여부에 따라 총저축액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이 모두 자산축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Motely(197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절대소득 가설과 항상소득 가설의 총합적 효과로 볼 수 있다. 요구변수 중에서는 상대소득수준 인지만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대소득수준인지가 상집단인 경우 총저축액이 가장 많았고 중집단과 하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떤 개인 또는 개별가계의 소비행위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행해질 수 없고 타인 혹은 다른 가계의 소비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결정되며 이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은 상승한다는 상대소득가설에 일치하고 있다.

다. 월평균 저축액

취업을 중집단과 하집단 사이에는 월평균 저축액에 큰 차이가 없지만 상집단과는 차이가 나타났고 무양육이 가장 낮은 하집단은 가장 높은 월평균 저축액을 보여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Hofferun(1979)의 연구에서는 가족원 중 취업인의 수가 저축에 미친 영향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수 취업인의 가구가 단일취업인의 가구보다 동일 소득수준에서 더 적은 유동자산을 보유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라. 증권액

연령에 따른 보유 증권액의 차이를 보면 50대와 60대의 보유액이 1,000만원원 초과하여 다른 연령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학력에 있어서는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권투자액이 증가하였다.

마. 부동산액

연령에 따른 부동산액의 차이를 보면 50대의 부동산액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60대, 40대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결과에서 50대 후반의 은퇴나 자녀의 독립 및 결혼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기타의 부동산액의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물자산의 처분은 외국에서의 경우처럼

은퇴기를 위한 유동자산의 대체로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수기에 요구되는 경제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입변수에 따른 가계의 재정상태분석은 <표 4>~<표 8>과 같다.

<표 4> 투입변수 및 변환변수에 따른 저축율

						(%)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연령	20대	18	31.78	A	*	부양율	하 0.00-1.33	97	26.50	A	*	
	30대	93	23.85	B			중 1.34-3.00	187	21.60	B		F=4.09
	40대	145	21.99	B			상 3.01-7.00	80	21.25	B		
	50대	67	20.28	B		주관적	비관적	106	19.49	A	**	
	60대 이상	29	19.51	B			경기신망	중립적	146	21.82	A	F=6.69
가족수	2인 이하	28	24.10	F= .86	F= .86	낙관적	낙관적	116	26.51	B		
	3인	54	23.04				가치	현재지향적	240	20.67	***	
	4인	153	21.22				지향성	미래지향적	124	26.47	T=3.56	
	5인 이상	135	23.83			상대소득	-4 - -1	90	25.12	F=2.21		
가족	형성기	17	33.24	A	수준인지	0 - 1	190	22.76				
	생활주기	확대기	294	22.37	B	2 - 6	85	20.41				
	축소기	59	21.02	B	가계관리	하 18-58	110	19.90	A	**		
학력	중졸 이하	86	21.31	F= .39		중 59-66	133	21.75	A	F=6.85		
	고졸	161	22.67			상 67-90	115	26.78	B			
	대졸 이상	115	23.17		가계관리	하 6-18	117	19.11	A	***		
1인당	25만원 미만	101	20.06	F=2.37	계획	중 19-21	136	22.18	A	F=8.26		
	가계소득	25-49만원	151		22.67	상 22-30	109	22.93	B			
	50만원 이상	112	25.03		가계관리	하 6-20	94	21.00	F=1.43			
남편직업	전문직	23	16.78	A	수행	중 21-24	174	22.86				
	비전문직	320	23.12	B	상 25-30	95	24.63					
	무직	10	14.00	AB	가계관리	하 6-18	110	20.31	A	**		
부인직업	전문직	6	20.00	AB	F=1.45	통계	중 19-22	138	21.43	A	F=6.18	
	비전문직	93	26.55	A			상 23-30	119	26.60	B		
	무직·선업주부	270	21.41	B			주택소유	자가	265	21.49	*	
	소득유형	정규·임시소득	75	21.69				타가	105	25.60		T=2.41
주택소유	정규소득	231	22.95	F=1.45	F=1.45	취업율	하 0.00-0.20	85	20.59	A	*	
	임시소득	47	25.09				중 0.21-0.40	187	21.61	A		F=4.61
	비해당	16	16.56				상 0.41-1.00	97	26.51	B		
	형태	자가	265				21.49	*				
타가	105	25.60	T=2.41									

* p<.05 ** p<.01 *** p<.001

(2) 변환변수에 따른 가계의 재정상태
 저축율의 경우 가계관리 상집단은 26.78%, 중집단과 하집단이 각각 21.75%, 19.90%로 나타나 가계관리 능력이 높을수록 저축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관리 능력에 따른 총저축액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가계관리 하위영역인 가계관리 계획의 능력에 따라 총저축액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계획능력이 높을수록 총저축액은 증가하였다. 이는 저량의 총 저축액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평균 저축액

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가계관리 하위영역인 가계관리 계획의 능력에 따라 총저축액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계획능력이 높을수록 총저축액은 증가하였다. 이는 저량의 총 저축액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평균 저축액

〈표 5〉 투입변수 및 변환변수에 따른 총저축액

(만원)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연령	20대	18	954	A	*** F=6.64	부양율	하 0.00-1.33	96	1658	F=2.02		
	30대	90	960	A			중 1.34-3.00	185	1475			
	40대	147	1110	A			상 3.01-7.00	81	964			
	50대	66	2466	B			주관적 비관적	103	1412			
	60대 이상	29	2734	B				경기전망	144		1353	F=.19
가족수	2인 이하	28	148	F=.99	낙관적	118	1542					
	3인	54	188		가치	현재지향적	239	1412				
	4인	153	146			지향성	미래지향적	122	1494	T=.30		
	5인 이상	135	120		상대소득		-4 - -1	92	2095	A	**	
가족	형성기	16	895	A	*** F=11.04	수준인지	0 - 1	185	1396	B	F=5.66	
	생활주기	292	1191	A		2 - 6	85	861	B			
	축소기	59	2777	B		가계관리	하 18-58	109	1414	F=.03		
학력	중졸 이하	86	1183	A	*** F=22.69		중 59-66	133	1475			
	고졸	160	1144	A		F=5.02	상 67-90	113	1497			
	대졸 이상	114	2044	B		가계관리	하 6-18	118	883	A	**	
1인당	25만원 미만	101	591	A	*** F=8.25		계획	중 19-21	135	1435	A	F=6.57
	가계소득	25-40만원	151	1091		A		상 22-30	106	2075	B	
	50만원 이상	111	2608	B		가계관리	하 6-20	94	1910	F=2.31		
남편직업	전문직	23	3348	A	*** F=0.71		수행	중 21-24	170		1232	
	비전문직	317	1286	B		상 25-30	96	1378				
	무직	10	2430	AB		가계관리	하 6-18	109	1683	F=1.15		
부인직업	전문직	6	1750	F=0.71	통제		중 19-22	137	1208			
	비전문직	92	1172			상 23-30	118	1498				
	무직·전업주부	268	1516		*** F=4.99	주택소유	자가	264	1709			
소득유형	정규,임시소득	75	2479	A			*** F=1.22	형태	타가	103	729	
	정규소득	225	1134	B					취업율	하 0.00-0.20	86	1096
	임시소득	50	1493	B						중 0.21-0.40	185	1475
	비해당	16	589	B	상 0.41-1.00	81			1658			

* p<.05 ** p<.01 *** p<.001

의 경우 하위영역인 계획에서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계관리능력이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행과 통제의 하위영역만이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 저축액과는 대조적으로 가계관리 능력과 부동산액수 간의 관계가 부

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투자가 주로 주택중심인 우리나라의 주택현실에서 볼 때 합리적인 가계관리보다는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변환변수에 따른 가계의 재정상태는 <표 4>~<표 8>과 같다.

<표 6> 투입변수 및 변환변수에 따른 월평균저축액

(천원)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연령	20대	18	463			부양율	하 0.00-1.33	97	462	A	**	
	30대	93	340		F=.53		중 1.34-3.00	187	317	B	F=5.58	
	40대	144	350				상 3.01-7.00	79	334	B		
	50대	67	373			주관적	비관적	106	285	A	**	
	60대 이상	28	324				경기전망	중립적	146	330	A	F=6.53
가족수	2인 이하	28	320			낙관적	116	450	B			
	3인	54	345		F=1.29	가치	현재지향적	240	336			
	4인	153	323				지향성	미래지향적	124	398		T=1.54
	5인 이상	135	403			상대소득	-4 - -1	90	521	A	***	
가족	형성기	17	478				수준인지	0 - 1	188	334	B	F=15.36
	생활주기	확대기	294	349			F=1.05	2 - 6	85	239	C	
학력	중졸 이하	86	257	A	***	가계관리	하 18-58	108	300			
	고졸	161	325	A	F=9.07		중 59-66	133	365		F=2.31	
	대졸 이상	115	461	B		상 67-90	115	402				
1인당	25만원 미만	101	178	A	***	가계관리	하 6-18	115	264	A	***	
가계소득	25-49만원	151	307	B	F=46.40		중 19-21	136	361	B	F=7.13	
	50만원 이상	112	589	C		상 22-30	109	441	B			
남편직업	전문직	23	370			가계관리	하 6-20	93	362			
	비전문직	320	360		F=1.37		중 21-24	173	354		F=.03	
	무직	10	159			상 25-30	95	363				
부인직업	전문직	6	435	AB	*	가계관리	하 6-18	108	333		F=2.90	
	비전문직	93	446	A	F=4.30		중 19-22	138	321			
	무직·전업주부	270	322	B		상 23-30	119	422				
	소득유형	정규,임시소득	75	425	A		통제	중 19-22	138	321		
정규소득		231	342	AB	F=2.05	상 23-30		119	422			
임시소득		47	372	AB		주택소유	자가	265	384		**	
비해당		16	203	B			타가	105	284		T=3.04	
취업율	하 0.00-0.20	83	320	A	**	취업율	하 0.00-0.20	83	320	A	**	
	중 0.21-0.40	187	317	A	F=5.90		중 0.21-0.40	187	317	A	F=5.90	
	상 0.41-1.00	97	462	B			상 0.41-1.00	97	462	B		

* p<.05 ** p<.01 *** p<.001

(3)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하였고 회귀분석가정의 위반여부는 도식적 잔차를 통하여 검정하

였다. 회귀분석에는 연령, 학력, 가족수, 1인당월평균 가계소득, 주택소유형태, 주관적 경기전망, 가치지향성, 상대소득수준 인지, 가계관리를 설명변수로 하여 5개의 종속변수 저축율, 총저축액, 월평균저축액, 증권액 및 부동산액에 대해 각각의 회귀분석을 하였

<표 7> 투입변수 및 변환변수에 따른 증권액

(만원)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연령	20대	17	288	AB	*	부양율	하 0.00-1.33	97	473		F=1.25
	30대	92	431	AB	F=2.77		중 1.34-3.00	186	658		
	40대	148	271	A			상 3.01-7.00	82	277		
	50대	67	1000	B							
	60대 이상	28	1161	B							
가족수	2인 이하	27	200			주관적 경기전망	비관적	105	629		F= .47
	3인	53	755		F= .59		중립적	145	541		
	4인	154	532				낙관적	118	394		
	5인 이상	136	472								
가족 생활주기	형성기	17	129	AB	*	가치 지향성	현재지향적	239	516		
	확대기	296	425	A	F=3.82		미래지향적	122	514		T= .02
	축소기	57	1116	B							
학력	중졸 이하	85	421	A	***	상대소득 수준인지	-4 - -1	92	642		F=2.10
	고졸	162	177	A	F=7.80		0 - 1	189	627		
	대졸 이상	116	1036	B			2 - 6	84	162		
1인당 가계소득	25만원 미만	100	128	A	***	가계관리	하 18-58	110	821		F=1.96
	25-49만원	153	267	A	F=11.69		중 59-66	133	409		
	50만원 이상	111	1020	B			상 67-90	115	388		
남편직업	전문직	23	2635	A	***	가계관리 계획	하 6-18	118	621		F= .72
	비전문직	322	364	B	F=17.65		중 19-21	136	372		
	무직	9	778	B			상 22-30	108	606		
부인직업	전문직	6	350			가계관리 수행	하 6-20	94	869		F=2.26
	비전문직	92	570		F= .07		중 21-24	173	434		
	무직·전업주부	271	505				상 25-30	96	351		
소득유형	정규·임시소득	73	1415	A	***	가계관리 통제	하 6-18	108	804		F=1.81
	정규소득	230	327	B	F=7.65		중 19-22	140	428		
	임시소득	50	204	B			상 23-30	119	376		
	비해당	16	168	B							
주택소유 형태	자가	267	648		**						
	타가	103	179		T=3.32						
취업율	하 0.00-0.20	86	264								
	중 0.21-0.40	186	658		F=1.38						
	상 0.41-1.00	97	473								

* p<.05 ** p<.01 *** p<.001

다. 이들 변수 중 가계관리는 하위영역을 합한 한 변수로 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켰다. 설명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킴에 있어 주택소유형태를 자가의 경우

1점, 타가의 경우 0점, 가치지향성도 현재지향형을 0점, 미래지향형을 1점의 가변수로 전환하였고 기타의 변수들은 연속변수로서 그대로 회귀모형에 적용

〈표 8〉 투입변수 및 변환변수에 따른 부동산액

(만원)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변수	집단	빈도	평균	D	F,T값	
연령	20대	16	9181	A C	***	부양율	하 0.00-1.33	91	21169	F= .66		
	30대	90	11933	A	F=4.99		중 1.34-3.00	181	31229			
	40대	139	23975	A C			상 3.01-7.00	76	26625			
	50대	65	55385	B		주관적	비관적	102	30930	F= .55		
	60대 이상	27	48981	BC			경기전망	중립적	138		29181	
가족수	2인 이하	26	17112			낙관적	112	21906				
	3인	50	39777		F=1.81	가치	현재지향적	230	27226	T= .10		
	4인	148	19422				지향성	미래지향적	119		27895	
	5인 이상	130	33673									
가족	형성기	16	14086	AB	*	학력	중졸 이하	83	11657	A	**	
생활주기	확대기	280	23834	A	F=3.33		고졸	153	23709	A	F=6.06	
	축소기	58	47845	B			대졸 이상	112	44428	B		
1인당	25만원 미만	99	8465	A	***	가계소득	가계관리 하 18-58	105	35643	F=1.17		
	25-49만원	146	17757	A	F=26.25		중 59-66	127	25991			
	50만원 이상	104	47739	B			상 67-90	111	21604			
남편직업	전문직	22	69909	A	*	가계관리	하 6-18	113	30049	F= .15		
	비전문직	306	25350	B	F=4.42		계획	중 19-21	127		27814	
	무직	10	18550	AB			상 22-30	106	25033			
부인직업	전문직	6	45833			가계관리	하 6-20	90	44289	A	*	
	비전문직	85	26311		F= .23		수행	중 21-24	166	21610	B	F=3.78
	무직·전업주부	262	27305				상 25-30	92	21174	B		
소득유형	정규·임시소득	71	50796	A	*	가계관리	하 6-18	106	41132	A	*	
	정규소득	221	20348	B	F=3.79		통제	중 19-22	131	21820	B	F=3.11
	임시소득	45	27622	AB			상 23-30	115	21191	B		
	비해당	16	17438	AB								
주택소유	자가	252	36992		***	형태	자가	102	3564		T=6.68	
	타가	102	3564				취업율	하 0.00-0.20	81	25636	F= .69	
취업율	중 0.21-0.40	181	31229			중 0.21-0.40	181	31229				
	상 0.41-1.00	91	21169			상 0.41-1.00	91	21169				

* p<.05 ** p<.01 *** p<.001

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은 표준화된 산포도(Scatterplot)와 Normal Probability Plot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저축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주택소유형태가 부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무주택자의 경우에 유주택자보다 저축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상대소득수준인지 역시 부적으로 나타나, 상대소득수준을 낮게 인지할수록 저축율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대소득수준을 개선시키려는 바람직한 자세로 보인다.

총저축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1인당월평균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저축액수는 증가하였다.

월평균 저축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1인당월평균가계소득, 가족수, 주관적 경기전망, 가계관리, 상대소득수준 인지의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47.8%를 설명하고 있다.

증권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1인당월평균가계소득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11.0%를 설명해주고 있다.

부동산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1인당월평균 가계소득, 가족수, 연령, 학력, 가치지향성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컸다.

가계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총저축액, 부동산액, 증권액은 자원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높으며 저축율과 월평균저축액의 경우 자원변수, 요구변수 그리고 변환변수에 의해 설명이 되고 있다. 특히 월평균저축액의 경우 동일한 설명변수에 의해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성 집단(각 변수의 평균점 및 평균액을 사용한 집단)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의 변수를 회귀방정식에 포함하였다. 연령과 교육, 연령과 소득, 학력과 소득의 상호작용항과 연령, 학력각각의 제곱항을 포함시켰으며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며 도출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표 9> 저축 및 투자실태에 대한 중회귀분석표

종속변수 설명변수	저축율(%)		총저축액(만원)		월평균저축액(천원)		증권액(만원)		부동산액(만원)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076	-.063	3.725	.183	-2.676	-.091	1.549	.118	51.638	.142
가족수	.788	.060	9.852	.045	91.124	.287	9.625	.068	782.564	.199
학력	-.344	-.066	9.324	.106	-1.133	-8.879E-03	4.000	.071	186.453	.118
1인당 월평균 가계소득	.688	.155	29.614	.396	74.942	.692	13.053	.275	751.855	.568
주택소유형태	-6.599	-.201	3.015	5.4209E-03	-59.341	.074	-.680	-1.925E-03	1002.910	.102
주관적 경기전망	.640	.124	-.213	-2.450E-03	12.599	.100	-4.776	-.087	-105.147	-.068
가치 지향성	3.748	.120	10.590	.020	36.976	.048	14.971	.045	907.055	.096
상대소득 수준인지	-1.386	-.151	-5.428	-.035	-21.608	-.097	-2.634	-.027	89.120	.032
가계관리	.257	.145	.660	.022	4.233	.098	-.960	-.051	-30.862	-.058
Constant		3.072		-356.881		-622.483		-42.261		-6429.867
R ²		.138		.227		.478		.110		.403

* p<.05 ** p<.01 *** p<.001

N=저축율(340), 총저축액(339), 월평균저축액(340), 증권액(340), 부동산액(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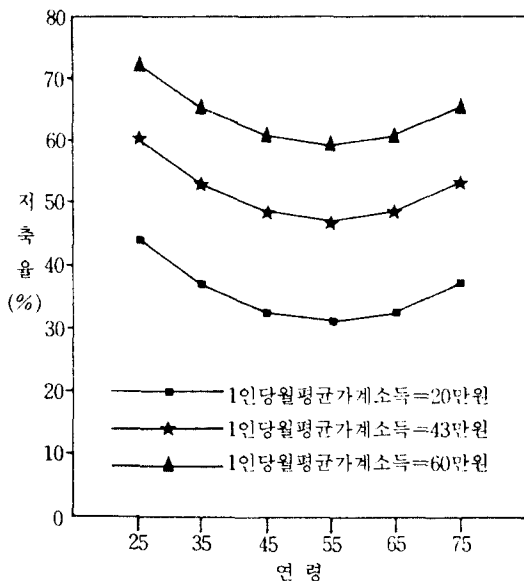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저축율} = & 33.686 - 1.643 * \text{연령} + 1.733 * \text{가족수} + \\ & .704 * \text{1인당월평균가계소득} - 5.191 * \text{주택} \\ & \text{소유형태} + .667 * \text{주관적경기전망} - 1.322 * \\ & \text{상대소득수준인자} + .267 * \text{가계관리} + .015 * \\ & \text{연령}^2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총저축액} = & -622.173 + 17.261 * \text{연령} + 29.486 * \text{1인} \\ & \text{당월평균가계소득} - .128 * \text{연령}^2 \end{aligned}$$

저축율에 대한 <그림 1>를 보면 3집단 모두가 55세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점차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생활주기 축소기 이전의 단계에서 자녀 교육비와 자녀 결혼비용의 과다한 부담으로 인해 저축율이 점차로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 진수기 이후에는 지출액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은퇴기를 위한 준비로 인해 저축율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Ando-Modigliani의 생애주기 가설과 반대되는 현상으로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저축성향이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현자·최은숙(1986)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으로서 아래로 볼록한 2차 방정식을 나타내었으며 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저축율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령에 따른 저축율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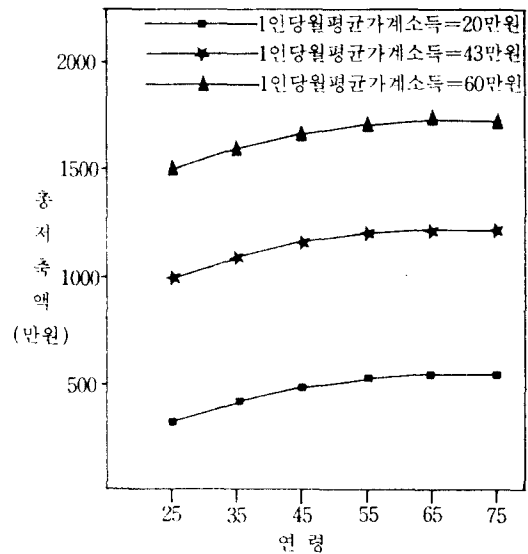
한편 총저축액에 대한 <그림 2>을 보면 1인당월평균가계소득이 평균인 집단과 그보다 낮은 집단, 높은 집단은 모두가 연령에 따라 총저축액이 점차로 증가하다가 65세를 기준으로 조금씩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계가 현재 소득에만 전적으로 기초하여 저축 및 부의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대되는 미래상황 즉 은퇴이후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젊었을 때에는 저축을 하고 은퇴 이후에는 자신들의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의 저축을 한다(Danziger and et al., 1982-1983)는 생애주기 가설에 일치한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5-45세에는 저축액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65세까지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65세 이후의 은퇴기에는 부의 저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세와 65세 사이에서 저축액의 증가가 완만해진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상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그림 2> 연령에 따른 총저축액의 변화추이



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도시가계의 재정상태는 자원변수와 요구변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저축율의 경우, 가족생활주기의 형성기단계에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에 가까우며,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할 때 저축율은 증가하였다. 총저축액은 가족생활주기의 축소기단계에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고소득층에 가까우며, 가계관리 계획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자신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총저축액이 증가하였다. 월평균저축액은 고향력층이며 사회경제적으로 고소득층에 가깝고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할 때, 그리고 자신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증가하였다. 증권액과 부동산액의 경우 가족생활주기의 축소기단계에 있고, 고소득층이며, 자신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보유 액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적은 자본을 소유했지만 적극적인 가계저축 및 투자행동을 보인 가족생활주기의 형성기단계의 가계와 일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가족생활주기의 축소기단계의 가계를 위하여 가계저축 및 가계투자 선택종목이 다양하게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도시가계의 재정상태는 변환변수인 가계관리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저축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가계관리가 바람직한 재정상태를 지향하도록 한 반면 증권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게 나타났다.

셋째, 도시가계의 재정상태는 자원변수 중에서는 1인당월평균가계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요구변수 중에서는 상대소득수준 인지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저축에 관한 절대소득 가설과 상대소득 가설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으며 절대소득 가설과 상대소득 가설의 측정도구가 보다 정교하다면 가설의 검정과 비교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과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가계관리와 가계의 재정상태파악을 통하여 그 관계를 정립하는 연구로서 가계의 재

정상태에 대한 가계관리의 역할과 재정상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심층적 이론연구와 함께 특히 저축 및 투자이론을 가계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의 수정과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변수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자산 상태를 명시해주는 변수, 즉 예를 들면 순소득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과 같은 상대적 비율을 포함시킴으로서 새로운 변수의 개발과 연구모형의 정교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횡단분석의 경우 현 시점하에서의 정태적 파악은 가능하나 미래에 있을 해위의 동태적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횡단분석과 함께 시계열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모형에 대한 통합적인 검정, 사용된 설명변수, 그리고 그러한 변수들의 설명력에 대한 인과적 추론이 가능한 분석기법의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혜경,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3호, 1990, pp. 87-103.
- 2) 김광식, 「한국 가계의 저축행태」, 한국개발원 연구총서, 제4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75.
- 3) 김광식, "경기순환과 경기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논집, 제6호, 청주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84, pp.161-179.
- 4) 김기욱·이승진,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제1권 2호, 1990, pp. 15-31.
- 5) 김순미, "도시가계의 금융자산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6) 김연정,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7) 문숙재, "가정관리이론 정립의 체계론적 접근에 의한 비교연구(I)", 이화가정학 60주년 기념교

- 수 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편, 1990, pp.119-145.
- 8) ———, 김정옥(역), 「가정자원관리」, 서울:동명사, 1990.
 - 9) 윤정혜, “도시 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 문제에 관한 연구-서울과 인천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2호, 1986, pp.67-88.
 - 10)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주부경제의식 및 저축환경 조사」, 서울: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 11) 정용선, “가계운용 실태조사(부산시)-가계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4호, 1984, pp.159-171.
 - 12) 조희금,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 행동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1984, pp.57-55.
 - 13) 최현자·최은숙,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 경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제4권 2호, 1986, pp.35-51.
 - 14)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8.9, 1989.5, 1990.2
 - 15) 한국은행, 「저축시장조사」, 서울:한국은행, 1990.
 - 16) 홍은실, “주부의 가치지향과 의사결정양식에 관한 연구-광주시 주부를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17) Bernstein, “Management of Individual Portfolios”, in F.J. Fabozzi(ed), 「Readings in Investment Management」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83.
 - 18) Beutler, I.F. and J.W. Mason, “Family Cash-Flow Budgeting”, *HERJ*, Vol.7, No.1, 1987, pp.3-11.
 - 19) Danziger, S., J.V.D. Gaag, E.Smolensky and M. K.Taussing, “The Life-Cycle Hypothesis and the Consumption Behavior of the Eldely”, *J.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5, No.2, 1982-1983, pp. 208-227.
 - 20) Deacon, R.L. and F.M.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Mass:Allin and Bacon, Inc., 1988.
 - 21) Edwards, K.P., “Using a System Framework for Organizing Family Financial Planning”, *J.C.A*, Vol.22, No.2, 1988, pp.319-332.
 - 22) Hefferan, C.,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ERJ*, Vol.11, No.1, 1982, pp.47-55.
 - 23) Hira, T.K.,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CSHE*, Vol.11, 1987, pp.183-194.
 - 24) ———,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CSHE*, Vol.14, 1990, pp.165-175.
 - 25) Katona, “Psychology and Consumer Economics”, *JCR*, Vol.1, 1974, pp.1-8.
 - 26) Kelly and Scheewe, “Buyor Behavior in Stagflation / Shortages Economics”, *J.of Marketing*, Vol.39, 1975, pp.44-50.
 - 27) Modigliani, F., “Life Cycle, Individual Thrift, and Wealth of 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6, No.3, 1986, pp.297-313.
 - 28) Mullis, R.J. and E.J. Metzzen, “Age and Wealth: A Cross / Within-Cohort Analysis”, *JCSHE*, Vol. 10, 1986, pp.221-223.
 - 29) Olson, M. and M.J.Bailey, “Positive Time Preference”, *J. of Political Economy*, Vol.89, No.1, 1981, pp.1-25.
 - 30) Prather, C.G., “The Ratio of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1, 1990, pp.53-69.
 - 31) Randall, M.R., “Inflation, Income, and Eroision of Household Wealth”, *Business Economics*, Vol.56, No.4, 1981, pp.20-23.
 - 32) Scannell, E., “Dail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1, 1990, pp. 133-146.
 - 33) Stillman, R.J., 「Guide to Personal Finance:A Lifetime Program of Money Management」, 4th ed. Mass:Prentice-Hall, Inc., 1984.
 - 34) Titus, P.M., A.M. Fanslow, and T.K. Hira,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es”, *HERJ*, Vol.17, No.4, 1989, 309-318.